석재단열패널 기술력으로 공공건축 시장 도전

전남도지사상　전민수 ㈜청도 대표

전남 장성에 기반을 둔 건축자재 제조기업 ㈜청도(대표 전민수)가 석재단열패널을 중심으로 공공건축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14년 설립된 청도는 석재단열패널, 실내벽체마감패널, 화장실 칸막이 등 건축 내·외장재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 제조기업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통해 학교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급 실적을 쌓아왔다.

청도의 핵심 경쟁력은 무용접·내진 타공각관 공법을 적용한 석재단열패널이다.

이 공법은 기존 용접 중심 시공 방식에서 벗어나 볼트 체결 방식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위험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시공 과정에서 화기 사용을 최소화해 안전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유지·보수와 해체 역시 용이해 공공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는다.

실제로 실물모형시험과 준불연 시험, 실내공기질 시험 등을 거쳐 내진·내화·친환경 성능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았다.

제품 경쟁력은 가격과 시공 효율성에서도 드러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기준 동종 제품 대비 경쟁력 있는 단가를 유지하면서도, 시공 공정 단순화로 공기 단축과 품질 균일화를 동시에 꾀했다. 이러한 특성은 노후 학교 시설 개선,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예산과 일정이 엄격한 현장에서 특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내벽체마감패널과 화장실 칸막이 역시 준불연·실내공기질 기준을 충족한 제품군으로, 학생 안전과 위생 환경 개선을 중시하는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적용 사례가 늘고 있다.

목포·영광·곡성·광주 등지의 학교와 공공시설 시공 실적은 청도가 단순 납품을 넘어 현장 적용성과 신뢰성을 함께 축적해 온 기업임을 보여준다.

청도는 기술 개발과 함께 지역 고용 창출과 산업 생태계 유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생산과 시공 전 과정을 자체 운영하며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하고, 향후에는 내진·친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공공건축 환경 변화에 맞춰 제품 고도화와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민수 대표는 "건축자재는 눈에 띄는 마감보다 보이지 않는 구조와 안전이 더 중요하다"며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제품인 만큼 책임 있는 기술과 품질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광양 건설현장 기반 책임지는 건설자재 공급

전남도지사상　장성호 백운산업㈜ 대표

전남 광양에 뿌리를 둔 백운산업㈜(대표 장성호)은 지역 건설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떠받쳐 온 레미콘·아스콘 전문 제조기업이다.

2007년 설립 이후 광양시 성황동에 생산 거점을 두고 도로 포장과 각종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기반 산업의 한 축을 형성해 왔다. 대규모 공사부터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 현장까지 폭넓은 공급 경험을 축적하며 지역 건설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백운산업의 경쟁력은 생산과 품질 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운영 체계에서 드러난다. 원자재 수급부터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연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이를 통해 납기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민간 건설 현장 모두에서 안정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영 안정성도 눈에 띈다. 외부 환경이 급변했던 시기에도 매출 기반을 꾸준히 유지하며 전년도 기준 409억9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는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는 생산 효율 개선과 원가 관리에 집중해 내실을 다져 왔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러한 경영 기조는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기업 체력을 지키는 동력이 됐다.

조직 운영에서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중시한다.

매월 노사 간 정례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작업 환경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휴가비와 식대, 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가족 단위 복지까지 아우르는 제도를 운영하며 근무 만족도와 조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단기 성과보다 지속성을 택했다. 청소년 선도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오며 지역 안전과 복지 증진에 참여해 왔고,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성장이 맞물려야 한다는 인식이 경영 전반에 반영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성호 대표이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품질 경쟁력과 책임 있는 기업 운영이 백운산업의 가장 큰 자산"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초심을 지키며 흔들림 없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향토기업…특화된 기술력·숙련된 인력 강점

전남도지사상　이석만 ㈜남부이엔씨 대표

㈜남부이엔씨(대표 이석만)는 1997년 설립 이후 28년간 지역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종합 건설업체다. 토목공사를 기반으로 지반조성, 포장공사, 구조물 해체, 상·하수도 설비공사, 도장·습식방수, 석공, 조경식재, 건설기계 대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면허와 시공 역량을 갖추고 있다.

20여 대, 7종의 건설기계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강점인 고난도 전문 공종에 특화된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을 토대로 최신 장비와 체계적인 공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정밀한 시공을 제공한다.

안전은 남부이엔씨 경영의 핵심 가치다. 회사는 '무재해·무사고 현장'을 목표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SH신용평가(이크레더블), ISO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내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주요 공사는 지역 발전의 궤적과 맞닿아 있다. 광양 성황·도이지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광양 고오수관로 시설 개선공사, 진월대리 구거 재해예방사업, 백운산 산림박물관 상·하수도 인입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가야초등학교 정비 및 법면 정비공사, 진월 장재마을 농로 포장공사, 옥곡면 신금리 석축공사 등 다수의 공공사업을 수주·완공하며 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 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실천하고 있다. 남부이엔씨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부터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을 통해 나눔의 범위를 해외로 넓혔다.

지역사회 기여 역시 중요한 경영 가치 중 하나다. 2019년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에 5500만원을 기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열악한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근로자에 대한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 연간 단위의 업무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사원을 선발하고, 순금 10돈을 포상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자긍심과 동기 부여를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영 가치와 철학을 임직원과 공유하고, 가정과 기업,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남부이엔씨는 앞으로도 고품질·고효율·친환경 건설을 목표로 스마트 기술 도입과 시공 역량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창호 전문 제조기업…생산 효율·품질 안정성 동력

전남도지사상　이형주 ㈜윈가람 대표

㈜윈가람(대표 이형주)은 2011년 광주 동구에서 청년창업기업으로 출발한 창호 전문 제조기업이다. 이듬해 전남 나주시 산포면에 생산동을 구축하며 본격적인 제조 기반을 갖춘 윈가람은 국내외 동종 제품을 직접 분해·조립해 구조와 성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술 축적에 나섰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기술 경쟁력은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외부 평가로 이어졌다. 2013년 전남테크노파크의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며 사업성과와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2014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R&D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세계 최초로 EPS(Expanded Polystyrene) 추가 발포 기술이 적용된 금속제 창호를 개발했다. 이는 단열성과 구조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원천기술로, 윈가람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됐다.

기술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6년 2월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식재산권 확보에 집중했다. 또 개발된 제품군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위해 약 3000평 규모로 생산공정을 확장 이전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윈가람은 국내 특허등록 8건을 비롯해 상표등록증 4건, 서비스표등록증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유럽·독일 등 해외 특허도 확보해 기술 보호와 글로벌 진출의 기반을 마련했다.

생산 능력 확대와 함께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위험성 평가와 클린사업장 인증을 획득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결과 올해까지 산업재해 '0건'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력과 품질은 각종 인증으로 입증됐다. 국토교통부 녹색기술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및 품질보증조달물품 인증을 획득했으며, 2017년 대한민국 우수 특허대상 수상으로 기술 중심 기업의 위상을 확립했다. 2019년에는 업계 최초로 스마트공장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ISO9001·ISO14001 인증을 획득하고 해외 규격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했으며, 2017년과 2024년 해외 수출 실적을 창출하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동시에 직원 교육과 복지, 고충 처리 제도를 강화해 장기 근속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윈가람은 기술과 품질, 사람을 중심에 둔 경영을 통해 윈가람은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창호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중사출 금형 기술력' 설계·양산 체계 구축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상　박웅서 ㈜우성정공 대표

㈜우성정공(대표 박웅서)은 차별화된 이중사출 기술로 가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산업에 뛰어들어 두각을 보이는 금형 전문 기업이다.

우성은 1993년 7월 창립이래로 지속적인 기술경영을 통해 금형 제작 기술을 선도해 왔다.

회사가 보유한 이중사출 금형 기술력은 이종 혹은 이색의 재료로 만들어진 성형품을 금형 한 벌에 기계적인 작동 1회로 사출성형해 생산한다. 이중사출 기술을 적용하면 후 공정의 융착, 조립, 코팅 등을 제거해 사출품의 생산 원가가 절감되고 일반 금형으로 구현이 어려운 제품의 디자인 개선이 가능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회사는 지난 1993년 대우전자에 이어 1994년 삼성전자의 협력업체가 된 후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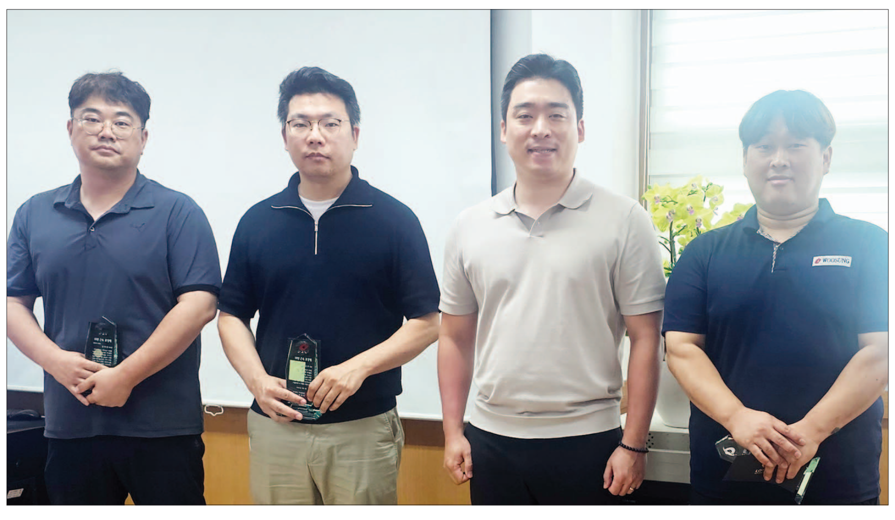
2000년 첫 수출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스웨덴의 몰드그룹(Mold Group)과 일본 후소공기(Fusokoki)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술교류를 시작했다. 2010년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타깃으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한 후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인 델파이(Delphi)에 이중사출 금형과 사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박웅서 대표는 기술개발에 공을 들였다. 회사는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유연인쇄회로필름 일체형사출성형기술 적용 30% 이상 경량오버헤드큰솔 전장부품 개발)을 진행했다.

또 2차원 유연인쇄회로 필름의 인서트(Insert) 사출성형기술을 개발했다.

이외에도 경량화, 중요 코어(Core) 형상 정밀도, 전도성 패턴 접착력, 고온·저온 방치 시험, 열충격시험, 염수분무시험 등 8가지 기술개발을 완료했다.

회사는 최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발빠르게 구축해 2022년 광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K-스마트등대공장 후보로 선정됐다.



박웅서 ㈜우성정공 대표는 "금형의 품질이 제품의 품질과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금형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제품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 가능한 세계 최고의 금형 사출 기술력을 기반으로 금형 설계부터 제품 양산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